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한귀*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파견대학은 마닐라에 있는 up마닐라(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Manila)로 갔다.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서 갈 때 새벽5시에 출발하였고 올 때는 7시에 출발했다. 교통체증 때문에 4시간~16시간까지 시간차이가 나지만 운 좋게도 우리는 4~5시간 반 밖에 안 걸렸다. 그 곳 학생들과 게임을 하고 박물관 투어도 갔다 왔는데 파트너를 한 명씩 정해준다. 학생들 대부분이 똑똑하고 친절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어학원에 새벽에 도착한 뒤 다음날 바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한다. LC,RC,SPEAKING,WRITING을 통해 6개의 반으로 나뉘고 하루에 8시간 씩 (1:1 4시간 그룹수업 4시간)수업을 진행하고 교재는 7개이다. 처음에는 아무말도 들리지 않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듣기 실력도 늘고 어느 정도 문장에 맞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선생님들의 특유의 발음이 있는데 그것만 자신이 구별할 줄 안다면 크게 상관없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숙제도 내주는데 대부분 길어봤자 15분정도 걸리는 수준이라 방과 후에 바로 놀러나가도 문제없다. 수업은 우리가 평일에도 많이 나가서 놀기 때문에 어제 무엇을 했나로 시작해서 20분정도 프리토킹을 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을 하든 안하든 모두 영어로 하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간에 뮤직비디오1개 광고2개를 그룹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원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p>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1주차- 레벨테스트 후 수빅투어를 하면서 수빅에 놀만 한 곳과 마트, 식당을 대충 훑어볼 수 있다. 이 때 환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물가대비 돈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때 소비를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1주차에 돈을 많이 써서 나중에 돈이 부족해진다.
	2주차- 회원권이 굉장히 비싼 아얏리조트에 가는데 비치와 아름다운 수영장이 있다. 그러나 수영장에서 제한되는 것이 많아서 정말 가만히 수영만 해야 된다.(래쉬가드와 수영복 바지 필수, 아니면 풀에서 수영을 못함)
	3주차- 요트를 타러 까마얀비치에 가는데 수영을 잘 못한다면 구명조끼를 절대 벗으면 안 된다. 다이빙을 할 때는 무조건 발로 떨어져야 한다. 핸드폰도 바다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한다.
	4주차- 뉴피 마닐라 대학에 가는데 교통체증이 심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시간대를 잘 맞추면 빨리 갈 수도 있다. 그곳 학생들과 sns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귀국 후에도 연락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몰에 가는데 굉장히 크고 종류가 많아서 기념품을 살 곳이 많다. 이때를 위해서 돈을 아껴놔야 나중에 기념품으로 들고 갈 것이 많아진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처음 공항에 들어섰을 때 습기가 확 느껴지는데 1주일 지나면 적응이 된다. 한여름일 때의 한국과 온도는 비슷하고 투어를 위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선크림은 2개가 적당하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처음에는 왜 통금이 10~12시 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밤에 돌아다녀 보면 이해가 된다. 동양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돈을 달라고 한다. 소매치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방을 앞으로 메고 길거리에선 핸드폰을 넣어놔야 한다. 밤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큰 일 날수도 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시설은 괜찮았다. 기대감을 낮추라고 했는데 본인은 기대 이상이었다.</p>

	직원들이 청소도 2틀에 한번 씩 해주고 세탁도 1주에 3번 가능하기 때문에 청결만 유지하면 벌레는 거의 없다. 신발을 신고 생활하게끔 되어있는데 본인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게끔 했다.(다만 방마다 시설차이가 조금 씩 있음)
식사	<p>학교식당( 0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 점심은 다 어학원 내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자주 나갔기 때문에 밖에서 많이 먹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저녁도 먹고 나가게 된다. 밖에서 먹는 식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싼 음식(랍스타,스테이크,립,피자)만 먹게 되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더 인출하게 된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교통은 평일에는 FB라고 다마스를 개조한 듯한 교통차량이 있는데 13페소(약300원미만)이고 콜택시를 부르면 인원예 상관없이 200페소(약4500원)이다. 평일에는 FB가 꽤 많이 오고 주말에는 평일보다는 덜 온다. 정확한 시간 기준은 없으나 꼭 콜택시를 불렀을 때 FB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30분은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시내까지는 10~15분 걸린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달러환전(450\$)	500000	출국 전 주거래 은행에서 환전
페소인출(5000P)	140000	4주차 때 돈이 부족해짐
합계	1366000	전부사용(식비,관광비,기념품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출국 전 항상 밴드와 톡방의 공지사항을 잘 숙지해서 빼먹은 것 없이 잘 챙겨가도록 하고 환전은 100달러 위주로 해야 환전율이 가장 높다. 돈을 아끼지 말고 기본450\$에+a로 환전해야 나중에 해외인출로 인한 수수료의 고통을 덜을 수 있다. 대부분 많이 나가서 놓고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은 말라리아 약과 A형간염 주사까지 맞고 갔지만 대부분 맞지 않고 왔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다만 설사약과 감기약은 반드시 한국에서 챙겨가도록 하고 없다면 어학원 내에서도 준다. 가벼운 외투도 필수이다. 수빅지역은 길거리에서 술과 담배도 못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마약할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땐 기후가 너무 습해서 숨이 턱턱 막혔는데 1주일 지나니깐 한국과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어학원 밥도 실력 있는 필리핀 요리사가 굉장히 한식스럽게 구현해 내기 때문에 1주 지나면 김치조차 맛있게 느껴진다. 다만 많은 경험을 위해 저녁은 밖에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꼭 먹고 와야 될 식당(크랩&밸리, 텍사스조, 코코라임, 줄리비)이 있는데 대부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우리가 가는 곳 대부분은 현지인들은 비싸서 잘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관리가 중요하다. 대부분 4주차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미 돈이 없어서 못하고 또 인출을 하게 된다. 인출을 하면 수수료가 창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내환전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 대부분의 레저나 활동은 확실히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기준 필요한 활동(스쿠버다이빙, 트리탐어드벤처, 마사지, 라이브카페 비어바, 타투)은 이렇고 이것들은 단체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활동이다. 본인 생각으로 그 곳은 맥주가 음식점과 시중판매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먹는 것이 이득이다. 특히 산미구엘 프리미엄 라벨은 꼭 먹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양주도 저렴하기 때문에 돈을 아껴놨다가 고가든 저가든 양주 한 병을 사간다면 누군가는 칭찬을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은 핸드폰 소매치기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말고 밤에는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그리고 구걸하는 애들한테는 절대 돈을 주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건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소매치기와 기념품 강매 등을 의심하라, 핸드폰은 손에 들고 다니면 표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만약 도난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한국에 와서 보험처리를 시도하도록 해야 한다.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그룹 스터디



한국식당



라이브카페



아얏리조트



수빅베이비치



크랩&밸리